

野, 당헌 폐기 ‘靑 침묵’ 추궁... 與 “질문 같은 질문을” 반발

청와대 국정감사

‘文 당헌 폐기’ 놓고 여야 신경전 국민의 힘 “선택적 침묵” 물음에 민주당 “대통령 대한 모욕” 항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령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문재인 당헌’ 폐기 여부와 관련한 신경전을 벌였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결정 관련 질의를 국정감사에서 하면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15년 정치 개혁 차원에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뒤 당헌에 명문화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년 4월 치르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차원에서 최근 전 당원 투표로 문 대통령이 약속하고 만든 당헌을 수정했다. 국민

의힘은 이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고, 이날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서도 관련 지적이 나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운영위원회의의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서 “문 대통령이 2015년 당 대표 시절 혁신안을 자랑했고, 책임 있는 정당은 보궐선거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 그 혁신안이 이낙연 대표에 의해 하루아침에 폐기됐지만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영민 대통

령 비서실장에게 “(민주당이 내년 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 시장) 후보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 질문에 “지금 민주당에 대해 국정감하는 것이냐”, “질문 같은 질문을 해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민주당 당헌을 왜 질문하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태연 운영위원장이 제지했지만, 김 의원이 “청와대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 입장이 없는데 선택적 침

묵 아니냐”고 묻자 다시 소동이 일었다.

특히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원남께서 국정감서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한다. 대통령 욕보이는 게 국회의원이 할 일이나”라며 김 의원을 겨냥해 강하게 항의했다. 노 실장은 김 의원 질문에 “여야 간 정치 쟁점화된 부분에 대해선 가급적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서에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 ‘추미에 법무부 장관 당적 보유’ 등 여야 갈등 사안에 대한 질문도 오갔다. 노 실장은 이날 국정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대통령 지시 이후 검찰에 제출한 자료가 있냐’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청와대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가 있냐’며 재차 물었고, 노 실장은 “원칙적으로 검찰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검찰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거의 완벽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야당은 또 ‘문 대통령이 임기를 지키라는 뜻을 대신저를 통해 전했다’는 취지의 윤석열 총장 발언과 관련 청와대에 질문하기도 했다. 노 실장은 이에 대해 “임기와 관련된 것이냐, 인사와 관련한 것을 말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 바란다”고 답했다.

청와대 국정감서에는 국무총리나 법무부 장관 등 행정부 국무위원이 민주당 당적 보유한 점과 관련한 지적도 있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서 “제 기억으로 선거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당적을 가진 재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추미에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정치적 중립이 훼손됐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노 실장은 주 원내대표 지적에 “내각 책임제에서는 당연히 당적 보유자들이 내각에 참여한다”며 “당적의 보유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롭게 집행하는가’ 그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농림식품 R&D 12건, 우수성과 100선 랭크

농진청 7건, 농식품부 4건 등 올라 연구개발 예산 대비 ‘성과’ 돋보여

올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농림식품 분야 12건이 선정돼 국가 연구개발 예산 대비 돋보이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식품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 12건이 ‘2020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는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인의 자긍심 고취와 우수한 국가연구개발 성과 홍보를 위해 매년 기계·소재, 생명·해양, 에너지·환경, 정보·전자, 융합, 순수기초·인프라 등 6개 분야 우수성과를 선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생명·해양 분야에 3건, 에너지·환경 분야에 1건 등 4건, 농



2020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영양과 식감을 개선한 고령자 맞춤형 기호식품 개발기술(주식회사대상 변명희 연구팀)’을 적용해 출시된 제품. /농식품부

촌진흥청은 생명·해양 분야 6건, 순수기초·인프라 분야 1건 등 7건, 산림청은 생명·해양 분야에 1건의 우수성과를 기록했다.

약 24조원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 예산 중 농림식품 연구개발 예산이 차지

하는 비중이 4.4%(약 1조원) 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우수성과 100선 중 12건이 선정된 것은 돋보이는 성과다.

생명·해양 분야 우수성과로는 ‘잔류 가능성이 없는 천연물질 기반의 향균 및 세균독소 펩타이드 대량생산기술’

(건국대 박찬규 연구팀), ‘영양과 식감을 개선한 고령자 맞춤형 기호식품 개발’(주식회사대상 변명희 연구팀), ‘농산물 원산지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동위원소 지도 개발’(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봉연식 연구팀) 등이다. 고령자 맞춤형 기호식품 개발의 경우 연구 결과는 국내 우수 특허 등록됐고 개발된 기술을 적용한 상품을 출시해 9억 25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추후 다른 제품군으로 확대 적용이 가능해 장기적으로 국내 고령자 맞춤형 제품시장 진입 기반 기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환경 분야 성과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고밀도 친환경 바이오 연료 생산’(고등기술연구원 연구조합 송형운 연구팀)으로 내열성과 내열성이 뛰어난 유용 토착미생물을 활용해 운전 시간이 2.5배 향상된 친환경 시스템을 개발해 소비되는 에너지를 30% 이상 절감했다. 확보한 유용 토착미생물 판매를 통해 최근 3년간 26억7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한용수 기자 hys@

中 노크 12년 만에 韓 파프리카 수출길

중국 수출을 타진한 지 12년 만에 국산 파프리카가 이달부터 중국으로 수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전북 김제에서 우리 파프리카의 대중국 수출을 기념하는 선적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적식은 파프리카가 본격 수출되는 11월에 맞춰 중국시장에 정식으로 우리 파프리카를 첫 수출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첫 수출 물량은 1.7톤으로 7일 평택항을 출항해 8일 중국 천진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국산 파프리카는 이날부터 매주 1~2컨테이너(1톤 이상) 물량이 중국으로 수출된다. 수출되는 품종은 레드, 오렌지, 미니 등 다양하며, 중국 북경 중심의 프리미엄 슈퍼마켓 체인인 BHG, 상하이 최고급 대형유통매장인 씨티, 프리미엄 식품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춘보 등 프리미엄 유통매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성조속증 유발’ 마스크 등 40개 제품 리콜

국표원, 비대면 품목 안전성 조사 실내용 텐트, 트램펄린 등 적발

성조속증 등을 유발하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어린이·유아용 면마스크 등 코로나19로 증가한 비대면 품목 40개가 안전기준을 위반해 리콜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용이 증가한 실내 놀이·여가용품 등 언택트시대 관련 502개 제품에 대해 9~10월간 집중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어린이 완구, 실내용 텐

트, 트램펄린 213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40개 제품에 수거 명령과 KC인증 취소 등이 처분됐다. 사용연령, 주의사항 등 경미한 표시의무 위반 173개 제품엔 수거 등을 권고했다.

리콜명령을 받은 40개 제품 중 실내 놀이용품이 18개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 완구 14개, 여가용 전기용품 5개, 마스크 제품 3개 등이었다. 실내용 텐트인 코쿤(모텔형 코쿤 티피 놀이텐트)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346배나 초과했고, 간과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와 피부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속증 등을 유발하는 물질인 노닐페놀이 기준치를 최대 8.5배 초과한 사실상 아동용 울인원 3중 면마스크 3p 제품. /쿠팡 홈페이지 캡처

염, 각막염 등을 유발하는 납 기준치를 각각 최대 270배, 15.9배 초과한 트램펄린 5개 제품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

어린이 완구인 액체괴물 11개 제품에서 피부 자극과 생식 발달에 문제를 유

발할 수 있는 붕소 기준치를 최대 14.8배 초과했고, 이 중 6개 제품은 삼킬 경우 유독할 수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방부제(MIT, CMIT)도 함께 검출됐다. 세계유통의 ‘스포츠게임 시리즈 테이블 축구게임기(대 628)’ 등 2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130배 초과했고, 온도기준치를 최대 48.3℃를 초과해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찜질기 3대 등 여가용 전기제품 5개도 리콜 조치됐다.

특히, 어린이와 유아용 면마스크 3개 제품(사실로 아동용 울인원 3중 면마스크 3p, 겨울왕국 캐릭터방한대 유아용, 뽀로로 캐릭터 키즈방한대)에서도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속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이 기준치를 최대 8.5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용수 기자

케이티하이텔 등 8개사 ‘2020 노사문화대상’ 수상

고용노동부는 2020년 노사문화대상 총 8개사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노사문화대상은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실천하는 기업을 포상하는 것으로 올해는 대통령상 2개사, 국무총리상 3개사, 장관상 3개사가 선정됐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케이티하이텔과 대우에이텍이 수상했고, 국무총리상은 아진산업, 티아이씨, 한국국제협력단이, 장관상은 현대백화점, 정석케미칼, 예금보험공사가 수상했다. 노사문화대상 수상 기업은 향후 3년 동안 정기근로 감독 면제, 은행 대출 시 금리우대, 산재 예방시설 및 장비 구입 시 산재기금 최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한용수 기자